

공군, 조기경보기 물색... B767, Saab2000 등

한국 공군은 공중조기경보(AEW, airborne-early-warning)기를 구입하기 위한 장기 계획을 고려중이라고 영 Flight Int'지가 보도했다.

동 지에 따르면 한국공군은 공중조기경보시스템 사양을 검토중이며 금년말까지 견적 요구서를 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최종 대상에 오른 기종은 보잉사의 B767에 공중경보관체체제(AWACS)를 탑재한 항공기와 사브사의 Saab2000에 IAI(Israel Aircraft Industries)의 Phalcon 레이더와 Ericsson Erieye를 장착한 항공기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으며 노드롭 그라만(Northrop Grumman)사의 APS-145를 갖춘 E-2C Group II, 록히드마틴사의 P-3, C-130J의 AEW버전 등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군은 항공기 성능과 가격을 고려하여 최소 4대의 항공기를 구매할 계획을 세우고 있

으며 단일 AEW체도로 한반도전역을 커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공중조기경보기는 최근 증가되고 있는 북한의 도발위협과 MiG-19기의 침투방어를 위해 높은 성능이 요구되고 있으며 현재 공군은 일본의 오키나와기지에 있는 미 공군의 E-3 AWACS기를 이용하고 있다.

한·미 미사일각서 폐기 추진

정부는 사정거리 1백80km 이상의 미사일 개발·획득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한미 미사일 각서' 폐기를 추진키로 하고 올해 하반기 제3차 한미 비확산 회담에서 이를 제기할 방침이다.

이양호 국방장관은 지난 7월23일 국회 국방위 답변에서 '정부는 이같은 확고한 기본 입장을 갖고 미측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우리의 입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에앞서 22일 국회

국방위 비공개 회의에서 '한미 미사일합의 사항을 조정한다는 정부 표현에는 폐기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한미 미사일각서에 의거한 사정거리 규제(1백80km)가 우리의 민간 항공우주 분야에까지 적용해서는 안되며 군사 미사일 규제도 최소한 미사일통제체제(MTCR)규제수준인 3백km정도가 돼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이라고 말했다.

국민회의 임복진의원은 국방위 질의에서 '현재 한미 미사일 양해각서는 조정이 아니라 폐기되어야 한다'면서 '이미 국내법 등 가입절차를 마친 한국이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의 회원국이 되고도 한미 미사일 양해각서의 규제를 받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STEPI 우주개발중장기 세부 실천계획 수립키로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구입고려중인 SAAB 2000(좌),B-767(右)공중 조기 경보기

(STEPI)는 우주개발 중장기 세부실천계획수립을 위한 분야별 기획위원회를 8월20일 과학기술 회관에서 개최하였다.

국가 우주개발 중장기계획수립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는 총괄정책분야, 발사체분야, 위성분야, 위성이용분야 등 4개분야로 나뉘어 각각 개최되었으며, 학계·연구계·산업계·정부 등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분야별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세부실천계획은 20년간 5년씩 4단계로 나누어 단계별목표에 따라 순차적으로 수립하게 되며 시작년도는 '97년이다. 1단계 5년간은 프로젝트 단위 수준의 세부사항으로 기획하며, 2단계부터는 단계별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기획하게 된다.

우주개발 중장기계획은 지난 4월30일 종합과학기술심의회에 상

정, 의결된 바 있다. 이에따라 동 회의는 이 계획을 차질없이 수행키 위해 우주개발 중장기 세부실천계획을 마련코자 이번에 첫번째로 개최된 것이다.

북한 민간항공기 영공 통과 허용 밝혀

북한 당국이 모든 나라의 민간항공기의 북한 영공 이용을 환영하고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외통신에 따르면 북한 민용항공총국(총국장 김요웅)대변인은 지난 8월 12일 북한이 오는 12월부터 모든 국제 민간항공기들에 영공개방을 허용한다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최근 발표를 공식확인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민용항공총국 대변인은 이날

관영 중앙통신과 가진 회전을 통해 IATA의 최근 발표를 재확인하고 '이것은 우리(북)의 영공개방 조치가 실천단계에서 적극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변인은 북한이 이미 오래전에 민항기의 영공통과 허용 입장을 표명했고 지난 1월 IATA에 가입했으며 그동안 IATA와 영공통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일련의 실무적인 문제들을 토의해 왔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 민용항공총국장 김요웅은 지난 94년 12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창립50주행사에 참석해 ICAO 이사회 위원장과 회담하면서 세계각국 민간항공기들에 북한 영공을 개방, 통과비행및 이착륙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있다.

기다립니다

우주개발에 대한 의견, 질의 및 기업체 등 우리나라의 항공우주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만한 의견이 있으시면 편집자에게(전화: 761-1104 윤병환) 보내주시시오.
채택된 원고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정기구독안내

우주개발을 위한 정기구독하고 있습니다.
우편료/정도의 부담으로 1년이상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항공우주협화 기획과로 신청해 주십시오.
1년간 구독료는 12,000원입니다.
담당: 남 주현
■전화: 761-1101
■FAX: 761-1175